

#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 出協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5-6월분) 12종

### 노벨상의 빛과 그늘

「과학 아사히」 엮음 / 손영수 옮김



전세계 과학자들이 수상을 꿈꾸는 노벨과 학상과 연관된 각종 일화를 소개한 책으로, 수상자 선발과정에서의 잡음과 후보자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경쟁을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과학계 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드라마를 통해, 과학이란 무엇이며 노벨상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게 한다.

電波科學社 / A5신 / 170면 / 3000원

### 西太后(상·하)

梁白華 지음



1861년 咸豐帝의 사망 이후부터 光緒帝가 사망할 때까지 50여년 동안 수렴정정을 하면서 청조 말기의 정치를 장악했던 여걸 서태후의 생애를 소설화한 작품. 궁녀 출신으로 함풍제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황귀비로 출세, 아들 同治帝를 낳은 뒤 사망할 때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태후의 영욕의 삶을 흥미롭게 그렸다.

깊은샘 / A5신 / 각 270면내외 / 각 2800원

### 하이테크혁명과 미래의 충격

每日經濟新聞社 과학기술부 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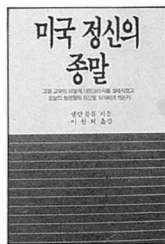


첨단기술, 즉 하이테크가 우리 인류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미래의 사회를 예측·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하이테크의 역작용을 사례별로 소개하여 사전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안내한 책. 매일경제신문의 과학기술 전문가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첨단기술의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기사들을 모아 수록했다.

每日經濟新聞社 / A5신 / 246면 / 3000원

### 미국 정신의 종말

앨런 블룸 지음 / 이원희 옮김



20세기 미국의 知的 위기를 신랄하게 고발한 시카고대학 앨런 블룸교수의 작품. 저자는 특히 미국대학의 자유주의적인 교육풍토가 이러한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하고, 고전교육을 통해 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범양사출판부 / A5신 / 460면 / 6000원

### 자유란 무엇인가

모리스 크랜스턴 지음 / 黃文秀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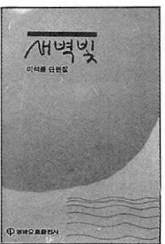


존 로크 계열의 경험주의 자유론과 헤겔 등 대륙의 관념론자들에게 의해 주장된 이성주의 자유론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자유론에 따라 각국의 자유주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文藝出版社 / A5신 / 190면 / 2500원

### 새벽빛

이석봉 지음



1963년 동아일보 장편 소설 현상모집에 「빛이 쌓이는 海溝」가 입상되어 등단한 뒤 꾸준하게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여류작가 이석봉씨의 단편집. 「새벽빛」 「아델라」 「탑」 「목소리」 「산위에 드러나는 마을」 등 돋보이는 작품 12편을 수록했다.

성바오로출판사 / A5 / 274면 / 2500원

### 野遊·五廣大 탈놀이

徐淵澗 지음



낙동강을 근간으로 하여 서쪽과 동쪽에서 각각 전승되어 오는 오광대놀이와 야유놀이의 전승체계, 자생성, 연극적 독창성, 다른 지역과의 영향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피고 있다. 풍부한 원색사진자료와 탈놀이 대사 및 각본을 수록해, 탈과 탈놀이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열화당 / A5신 / 110면 / 3500원

### 간디의 생애와 사상

차기벽 지음



비폭력적 저항운동으로 3억5천만명의 인도국민을 해방시켰던 마하트마 간디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치사상을 두루 살폈다.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빈틈없는

현실적 정치가이면서도 자기탐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간디의 여러 면모를 새롭게 인식해 볼 수 있다.

한길사 / A5신 / 242면 / 3500원

### 아버지의 보석

남미영 지음



동화작가 남미영씨의 수필집. 저자는 '진정한 부자란 삶에서 얻은 빛나는 보석이 가슴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지만 보석같은 일화들을 이 책에서 정감있게 들려주고 있다. 「노란 종이우산」 「홍부의 양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들」 등 70여편의 글을 수록했다.

원장 / A5신 / 286면 / 3500원

### 꽃그늘인양 다정한 내사랑아

秋英秀 지음



시동인 '靑眉'의 한사람으로 활발한 詩作활동을 벌여온 추영수씨의 수필집. 사람과 사물과의 만남 속에서 얻은 단상을 따뜻하고 차분하게 적은 50여편의 글들을 수록했다. 교단생활 20여년과 50여년의 생을 살아온 여류시인의 눈을 통해 삶의 의미를 조용히 되씹어 볼 수 있는 책이다.

海文出版社 / A5변형 / 202면 / 1500원

### 예언자

칼릴 지브란 지음 / 유영 옮김



레바논 태생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1883~1931)의 대표작으로, 수십개국어로 번역·출간돼 애독되고 있는 작품이다. 사랑·결혼·기쁨·슬픔·

종교 등 인간사의 여러면 속에 존재하는 심오한 진리를 평범하면서도 친근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정음사 / A5변형 / 118면 / 2000원

### 돈이 보낸 편지

李義容 지음



쌍용그룹 사보편집장으로 활동하는 한편으로 꾸준히 수필집을 발표해온 저자의 예화집. 돈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의 모습, 자기 기준으로 남을 저울질하려드는 사람들의 교만,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위트있게 꼬집은 짧고 재미난 글들이 수록돼 있다. 김천정씨의 컬러 삽화가 돋보인다.

대림기획 / A5변형 / 120면 / 2800원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10개월20호분·값1만원  
전화문의: 732-1431~3